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2월 19일
제1936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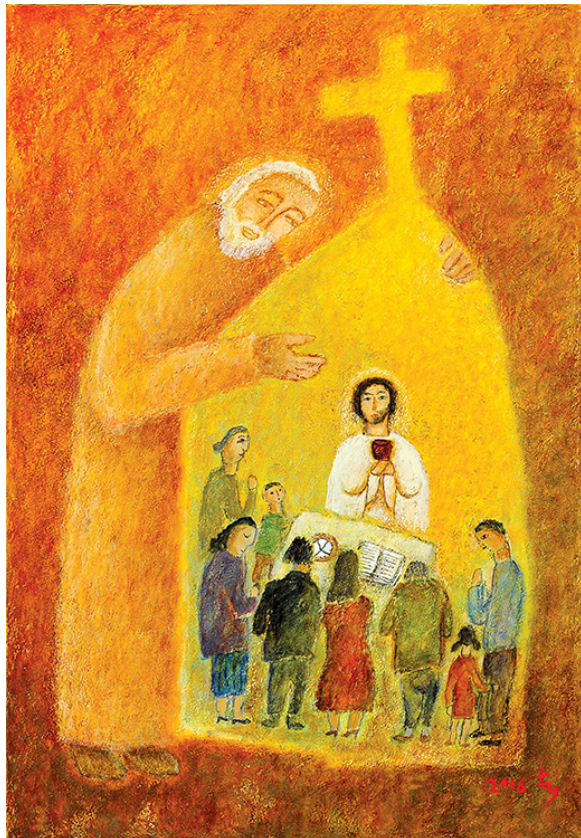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마태 5,44-45)



〈교회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집〉, 김옥순 수녀 작

연중 제7주일 (가해)

제 1 독 서 레위 19,1-2.17-18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화 답 송 시편 103(102)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제 2 독 서 1코린 3,16-23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복 음 마태 5,38-48 |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³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³⁹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⁴⁰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⁴¹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⁴²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⁴³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⁴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⁴⁵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⁴⁶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⁴⁷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⁴⁸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음 묵상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 이것은 영성체 전에 우리가 반복하는 기도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형제들이 먹고 마실 양식으로 내주지 못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과 정신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세상에서 관계는 이른바 ‘상호성’에 의존합니다. 흔히 말하는 ‘교환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냅니다. 우리의 정의가 교환과 저울에 근거한다고 믿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느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판단합니다. 선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가진 정의에 대한 생각으로 하느님의 정의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정의는 세상의 통념과 다른 새로운 정의입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정의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반응에 매이지 않고,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 그것이 꽃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꽃은 밟아도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의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분들을 괴롭혔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는 왜 부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까요? 교환 정의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우리에게 준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정용진 요셉 신부>

사순시기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사순’ (四旬)은 본디 ‘사십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이 숫자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사십 일 동안 재를 지켰고(탈출 34,28 참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 사십 일을 걸었다(1열왕 19,8 참조).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마태 4,1-2 참조). 이처럼 ‘사십’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

파스카 축제를 기쁘게 맞이하려면 이 사순 시기 동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목요일에 금육과 단식을 함께 지키고 있다.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은 만 18세부터 만 60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36조 참조).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사순 시기 동안 거행하는 전례는 신자들이 파스카 축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은 바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의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 뜻을 새긴다.

2월 22일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재의 수요일’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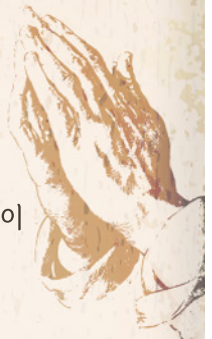
이 날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는 데에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이 재의 예식에서는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재를 신자들의 이마나 머리에 얹음으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줍니다.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함께 지킵니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재의 예식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저희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뉘우치며 살고자 하오니,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사순 감사송 ‘절제’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1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일시 : 2월 22일(수) 오전 10:30 - 십자가의 길, 11시 - 미사, 오후 7:30 - 미사
-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2월 19일(일)까지 본당 입구에 마련된 성지 가지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에는 단식과 금육을 지킵니다. 금육제를 겸한 단식제는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지켜야 합니다. (교회법 1251조 참조)

2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25주년 기념집 배부

- 본당 승격 25주년 역사에 따른 기념집을 한 가정당 1부씩 배부합니다. (8시, 10시, 2시, 5시 미사 후 구역부에서 배부)

3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2월 19일(일) 오전 11:30 (B-3,4)

4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2월 19일(일) 오전 11:30 (A-1,2,3)

5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2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

6 울뜨레아 회합

- 일시 : 2월 24일(금) 오후 8시 (A-1,2,3)

7 2023년 혼인 갱신식

- 일시 : 2월 26일(일), 10시 미사 중
- 환영식 : 2월 26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A-1,2)
- 문의 : (703) 300-5420

8 2월 26일(일) 모임 안내

-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KoC 월례회의 / 레지오 간부회의

9 2023년 학생 견진 성사반 신청

- 대상 : 7학년 이상
- 등록기간 및 장소 : 23년 2월 5일(일) - 2월 26일(일)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10 2023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110)
- 대상 : 1학년 신입생 등록자 전원
- 문의 : 이성근 에밀리아 (703) 827-1932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 5,44)

11 하상 성인학교 2023년 봄학기 안내

- 일정 : 3월 14일(화) - 6월 16일(금)
- 등록 : 2월 26일(일), 3월 5일(일), 3월 12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점심 없음)
- 안내서 및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 율리아나 (703) 217-2775



- ◆ 2월 23일(목)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 ◆ 평일 새벽 5시 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봉헌되며, 주일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 십자가 복사와 초 복사를 해 주실 분들은 입구 게시판 밑에 원하는 요일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 ◆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후문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는 하상관 주차장 앞쪽 라인(입구 쪽과 도로 쪽 주차 금지)과 성당 앞쪽 라인(주책가 쪽으로 주차 금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당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차량 방향을 성당 쪽으로 해 주시어 차불빛이 주책가를 향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 잠금장치에 삐의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상관 쪽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제대 초 봉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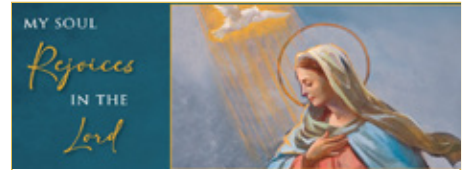
제대 초 봉헌에 함께 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22년 대림시기 불우 이웃 돕기 동전 모으기 결산 :

\$7,104.76

협조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받습니다.
- ▷ 2023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85,000** 입니다.
-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2월 12일(연중 제6주일)

봉헌금	\$ 6,606.00
교무금	\$ 13,940.00
교무금(신용카드)	\$ 2,500.00
감사 헌금	\$ 790.00
2차 헌금	\$ 2,616.00
온라인 봉헌	\$ 1,325.00
합계	\$ 27,777.00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2월 23일(목) 오후 5:00 - 6:00
- 2월 24일(금) 저녁 8:00 - 9:00
- 2월 26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영적 습관 기르기’ - 김인호 루카 신부

교황님의 2월 기도 지향 | 본당들

본당들이 친교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